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하지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9호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국화향기에 빠진 가을 불심 서울 조계사가 경내에서 제7회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개최한 가운데 10월 19일 한 불자가 관음수인을 형상화한 국화조형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33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수인으로 표현한 관음수인, 33관음국화수, 동진보살상 등 다양한 국화조형물이 선보인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함평군과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축제는 11월 8일까지 열린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불교계 'VR포교 시대' 열린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교계서도 VR기술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양 낙산사(주지 도후)는 10월 19일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사찰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찰 안내소에 VR체험존을 개설했다. 총 2대의 VR기기를 배치한 낙산사는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와 협력해 지난여름 VR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거쳐 공식적인 사찰안내 영상을 제작했다.

약 3분 길이의 영상은 낙산사의 전각과 문화재, 전경을 직접 옮겨 다니지 않고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요 관광위치별로 화면이 전환되며, 이를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도 추가돼 별도의 소책자나 안내판 없이 낙산사 전반을 관광할 수 있다.

낙산사 VR영상을 체험한 이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층은 VR기기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으며, 부모의 경우 안내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공되는 교육적인 효과에 주목한다는 게 낙산사 측 설명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체력적인 한계 없이 사찰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낙산사 종무원은 "VR체험이 사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인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스레 영상에 집중하게 되는 게 장점"이라며 "젊은 사람들은 '친구를 데리고 놀러와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신세대 포교에 뒤처진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낙산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행하는 계간지 〈템플스테이〉도 올해부터 모바일 매거진 앱 'tapzin'을 통해 일부 기사에 대한 VR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초에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 5개 사찰(월정사 · 신흥사 · 낙산사 · 삼화사 · 백담사)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VR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 측은 "매거진 외에도 앞으로 사회트렌드에 맞춘 VR홍보영상을 확대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 공간 제약 없는 新포교 가능

이처럼 VR기술이 불교계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대중이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홍보영상 등이 제공자의 임의대로 보여주고 싶은 곳을 보여줬다면, VR영상은 참여자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어 새로운 포교콘텐츠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월 19일 양양 낙산사에 VR체험존이 문을 열었다. 낙산사 총무 무문 스님이 VR기기를 착용한 뒤 사찰안내 영상을 체험하고 있다.

낙산사, 사찰 최초 VR체험존
문화사업단도 VR영상 제공해
깊은 몰입감에 대중도 호평
새 포교콘텐츠 가능성 높아
기획력 · 대중 수요 등 과제

황철기 ㈜도반HC 전무는 "일반사회에서는 VR이 주로 오락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불교계서 VR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는다면 미디어분야를 개척하는 선봉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문화해설사가 없는 사찰에는 이를 대체하는 인프라가 되고, 이야기가 있는 사찰에는 각 콘셉트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VR촬영 및 편집을 총괄하는 박영 ㈜도반HC 실장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찰에서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진촬영이나 풍경을 즐기곤 한다. 이 때문에 사찰안내 역할을 겸한 VR영상이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문화재 훼손 우려 등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촬영해 제공한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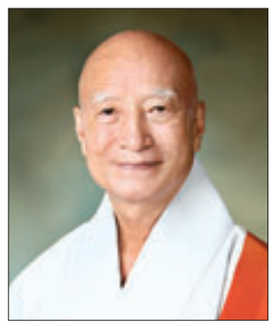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VR기술이 불교계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불교만이 간직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획력과 대중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촬영기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 더욱 입체적인 영상과 체험까지 가능하지만 수요 없는 제작이 자칫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VR기술에 접목 가능한 불교문화 기획자 양성을 통해 대중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박 실장은 "기술력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 가면 젊은이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기성세대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VR기술을 불교문화 안내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활용하고, 대중 확산 정도에 따라 상위기술을 접목하는 게 가장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원로회의, 설정 스님 총무원장 인준

10월 18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취임 법회 11월 1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前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6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22명의 원로의원 중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서는 핵심 쟁점사항으로 예상된 설정 스님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로회의 사무처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의혹 소명을 요구하는 원로스님들에게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설정 스님 측은 세부적인 해명자료까지 마련했지만 원로스님들이 이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스님들이 전반적으로 인준여부 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설정 스님과 제35대 집행부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정기중앙종회 개원일인 11월 1일 봉행된다.

한편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회의 시작 전 개회사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총무원장 선거가 조용히 끝나지 못하고 시끄러웠다. 따라서 이기고 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회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제34대 집행부는 마무리에 임하고 있다. 완수한 성과는 종단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고, 미흡한 내용 역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정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부여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스님들의 고견과 격려 덕분이었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 청안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QS대학평가'서 역대 최고 평가

국내 13위, 아시아 82위… 학계 평가 등서 두각

동국대가 '2017QS아시아대학평가'서 국내 순위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7 QS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순위 역대최고(국내 13위)를 달성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2016년 아시아 순위 88위를 기록했던 동국대는 올해 6계단 오르면서 82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순위는 1계단 올라 13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시아 426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 단일캠퍼스로 인정하는 QS의 평가방식에 따라, 동국대는 서울과 경주캠퍼스의 지표를 합산한 수치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교원논문 연구역량에서 큰 두각을 보였다. 특히 '학계 평가', '교원당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수'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학계 평가'는 국내 19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3계단 상승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23계단이나 상승했다. '교원당 논문 수'는 지난해보다 14위 상승한 국내 36위를 차지했다.

동국대의 강점인 '국제화 영역'도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 학생 아시아 45위(국내 6위), 인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아시아 35위(국내 9위), 아웃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아시아 13위(국내 3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생 평판도 순위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해 99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올해 6계단 상승한 93위를 차지하며 순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VISION 2020'에 따라 대학순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대학 10위 이내 진입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QS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2009년부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